

학문의 신학적 기초

Theological Foundation of Scholarship

전 광식 (고신대/신학과)

I. 학문의 길

근원에로의 복귀: 고대 헬라의 정신과 학문

서양정신의 가장 근원이 되는 요인은 무엇보다 헬라의 정신과 학문이었다. 고대 헬라의 호메로스의 시와 소포클레스의 희곡은 서양문학의 모태가 되었고, 소크라테스의 정신과 플라톤의 철학,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그 이후 서양정신과 학문의 초석을 이루었으며, 나아가 전세계 학문과 문화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echne 와 Episteme: 고대 헬라의 역할

고대 희랍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두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손, 발로 할 수 있는 techne로서 이것은 인간이 손발로써 하는 기술적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episteme로서 이것은 인간이 두뇌로써 하는 인식적 행위, 사유적 행위이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Episteme가 know-why의 문제라면 그것은 곧 만유의 원인과 원리를 아는 것이다. 학문은 episteme의 문제로서 그것은 원인과 원리(arche)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학문이전의 신화는 인간정신의 유아기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학문은 인간정신의 성인기적 단계에서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유아기적 단계에서 성인기적 단계로 가는 것을 '계몽'이라고 한다.

학문이란 각 실재의 원인과 원리를 아는 인식이다. 세계관이 전 실재에 대한 전이론적 인식이라면, 철학은 전 실재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고, 학문은 개별적 실재에 대한 이론적 인식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학문이 원리를 인식하는 과제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삼라만상전체, 우주 전체의 원리를 아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존재자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존재자들이 갖는 생명과 움직이는 모든 힘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존재자들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학문은 쉬 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문적 인식과 인간의 한계

계몽주의시대 이래 인류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 만유의 모든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인식론적 관점이 확립된 것은 근세 초였다. Descartes는 '생각하는 자아(res cogitans)'가 지식의 기초라고 하였고, F. Bacon은 '경험'이야말로 과학적 지식의 기초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이런 과학의 우상은 과학이론자들 자체에서조차 붕괴되어 버렸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론은 Thomas Kuhn이나 Hanson, M. Polanyi, 그리고 Paul

Feyerabend 같은 새로운 과학이론가들이 공동으로 주창하는 것으로서 모든 과학이론들은 과학자 개인이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세계관, 주견, 견해, 해석의 토대 내지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들이 수립하는 과학이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과학이론들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³⁾

둘째로 Karl Popper의 소위 비판적 합리주의(Kritische Rationalismus)⁴⁾이래로 모든 과학적 주장들은 결코 진리로 최종 확정될 수 없고, 늘 진리 아닌 것으로 반증될 가능성만 남아 있다고 한다. 경험이란 보편적이고 완벽하지 못하므로 경험되지 않은 경우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경험되어 세워진 가설들은 얼마든지 반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튼튼한 위상을 구축한 것과 같은 과학의 위상, 학문의 위상은 추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학문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존재는 존재의 기반을 잃고,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오늘날 현대문명이 퇴폐와 허무, 그리고 자살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이게 된 것은 이러한 무신론적 시대정신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존재의 기반이 사라지고, 존재의 기반이 사라지니 허무와 맹목, 우연과 운명이 지배하는 것이다.

II. 기독교학문함의 신학적 원리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운데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학문함에는 무슨 원리들이 놓여있을까?

1. 첫째 원리: 창조-타락-구속

기독교학문의 첫째 원리는 창조-타락-구속의 원리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원리를 아는 것인데, 인간과 학문, 세상과 역사의 기본원리는 창조-타락-구속이다. 그것은 구원과역사의 원리이면서 기독교세계관의 원리이다.

1) 창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없이 인간과 만물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며, 그리고 맹목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다

2) 타락은 ‘이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뱀의 유혹과는 정반대로 인간이 범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죄는 언제나 우리의 오성을 어둡게 하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원천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의 전 기능은 타락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한 무지와 오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존을 지니게 되었다.

3)타락의 상태에서 인간은 개량적 진보의 과정을 통해 결코 회복이나 구속에 도달할

수 가 없다. 구원에 들어감에 있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식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 인간은 여전한 무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2. 두 번째 원리: 진리로서의 성경

궁극적인 모든 진리는 성경에서 나온다. 이런 성경을 인식의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적 혼란과 무정부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빠지고 만다. 이를테면 Hegel이 절대정신(der Absolute Geist)을, Marx가 물질(Materie)을 절대적 주체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지상의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절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란 종교적 존재여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으면 지상의 다른 그 무엇을 절대화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화하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3.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기독교학문은 인간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수용한다. 기독교는 인간을 한편으로 하나님처럼 숭배하지도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인간을 동물이나 물질처럼 비하시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인간의 신성화도, 물화도 반대하면서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문명의 위기의 근간인 인간의 위기에 대해 기독교 학문과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문명회복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네 번째 원리: 학문함의 주체인 중생된 이성

성경이 가르치는 타락은 전적 타락, 완전타락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것, 그 이성까지도 타락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학문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적 이성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연적 자식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궁극적 진리, 구원과 관련한 진리는 이 자연적 이성을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인격의 전체가 타락하는 것처럼,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전 인격이 거듭나는 것이고, 인간의 지, 정, 의가 거듭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성도 중생해야 하고, 중생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기독교학문이 가능하고 또 해야 한다.

5. 다섯째 원리: 학문의 방향과 목표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영광

기독교 학문은 그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봉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기독교 학문에는 어떤 뚜렷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 그것이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곧장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다.

학문이 이러한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은 인간육망의 성취수단이나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그릇된 지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되고 만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가르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학문과 교육은 일종의 영적 행위이며, 광의적 의미에서 예배이다. 우리는 학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열정을 지녀야 한다.

전광식

독일의 Regensburg대, München대, 영국의 Oxford대에서 철학과 고전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밀레니움이 시작되는 해에는 Harvard대학에서 고전학을 연구하다.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가지 생각」(1987),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철학」(1995), 「배움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1997),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1998), 「고향: 그 철학적 반성」(1999), 「신플라톤주의의 역사」(2002), 「가난과 부요의 저편」(2004), 「문명의 황혼과 소망의 그리스도」(2005), 「경건의 길」(2006), 「성경적 환경론」(2006)등의 저서가 있다.

고신대 교무처장과 부총장, 총장대행을 역임하고 현재 철학사와 학문사, 그리고 신학사상사 등을 가르치면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 밴쿠버의 Trinity Western University/VIEW의 객원교수와 이 땅에 참다운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독수리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하지만 평생 화림동(花林洞)계곡에 있는 고향 집 소소가(蕭蕭家)에서 학문의 숲길을 걷고 사색의 들녘을 산책하고 싶어 한다. chon177@yahoo.com